



#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에 주력”

최근 잦은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글로벌기업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하게 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기업들도 특허정보를 얻는 곳이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로 제2기 원장을 맡은 한국특허정보원은 유명기 원장을 필두로 누구나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방위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을 알리는데 주력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한국특허정보원의 다각도 조직 개편과 내부 경쟁력 강화에 나선 유명기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을 만났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 유명기 원장

46년 출생, 연세대 이공대 기계공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제10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철도청 서울전동차사무소 운전과장,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산업기계과 공업연구관,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 기전관리과 기계기좌(현 기계사무관), 상공부 기계공업국 수송기계과,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파견 공업기정(현 공업서기관),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진흥과장, 상공자원부 기계공업국 항공방위산업과장, 특허청 심사2국 운수기계심사담당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교수부장, 특허청 심사2국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배재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국내·외 산업재산권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특허분류체계(IPC)를 정부 위탁사업으로 등록특허에 부여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유명기 원장은 “국내 산업재산권정보는 물론 해외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국가산업재산권 정보보급기관으로서 원스톱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원장은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품질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특허 기술정보서비

스기관으로서의 국내·외 위상 강화 등 4대 목표를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하고 투자와 관심을 집중할 생각이다.

아울러 유 원장은 지난 4월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깨끗한 조직문화 선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유 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윤리경영에 힘쓰겠다”며 “우수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95년 한국특허정보센터로 설립된 이래 국내 최고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며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정보 보급 활성화와 특허정보 조사분석 업무의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그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조직 운영 효율화와 인력 양성 시스템의 확충, 신 경영모델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조직을 관리본부와 사업본부의 2본부 체제로 개편해 조직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인력의 채용에서 육성에 이르는 전략적 인재육성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허정보에 소외돼 왔던 기업에게 특허정보원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직 한국특허정보원의 존재를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기 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특허정보원 2기 원장으로 부임한 후 품질 경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성과는?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위탁 용역사업의 완벽한 수행과 더불어, 특허청 일반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목표대비 월등한 실적을 거둬오면서 원활한 특허행정지원에 이바지했다. 지난해에는 상표법 제22조에 의한 특허청 상표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특허청 상표심사 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보고서 및 국제상표 등록출원과 관련된 영문번역 등을 특허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 신설된 특허청 전자출원지원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전자출원 기회제공을 통해 전자출원의 저변 확대를 실현해 전자정부 구현 및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질 높은 특허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보다 전문화된 조직 운

영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본부와 관리본부의 2본부 체제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투명하고 깨끗한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한국특허정보원 윤리경영을 선포,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숙한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한국 특허정보원으로 승격해 새롭게 출범된 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한국특허정보원의 전신인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지난 95년 7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출범하게 됐다. 출범 당시 기관형태는 한국발명진흥회 부설기관으로 3개 팀 8명의 조직으로 구성됐고 주요 사업은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단일 사업으로 출발했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센터의 독립법인화가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독립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출범, 대 국민 친화적인 명실상부한 종합특허정보 제공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독립 재단으로 승격된 지 불과 2년 반만에 국내 유일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산업계는 물론, 연구소, 학계, 발명계 등 전 분야에 걸쳐 특허정보를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KIPRIS'를 통한 국내특허 정보제공이라고 생각한다. 장기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특허정보원의 주요 사업은 공익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특허행정지원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모두 정보원의 핵심 사업으로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KIPRIS는 특허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이를 통한 대 국민적 특허마인드 제고를 위해 특허청 보유 약 400만 여 건의 국내 특허정보 및 해외 특허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PRIS 운영 및 전산자원의 효율 극대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 고객감동이 넘치는 KIPRIS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외 고객감동이 넘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함으로



써 세계 유수의 특허관련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다.”

- 기업들이 한국특허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기업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검색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전담 부서를 갖춘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연구개발 기술의 효율적 권리화를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서비스 부서를 통해 특허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위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양산된 약 400여 명의 전 산업분야에 걸친 기술분야별 전문 조사원이 방대한 양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조사도구를 활용해 기업, 연구소, 발명가들을 위해 정확한 조사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망라한 전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기술 정보DB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KIPRIS에서부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별도 구축한 전문가용 통합검색시스템과 특허청 심사관용 서치화일을 전량 수록한 조사용 전문도구 등 9개 이상의 전문가용 서치툴을 이용해 신속 정확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1세기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로 칭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중시되는 사회인데 이를 위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과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와의 PDP 관련 특



허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세계 시장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경쟁국들의 집중적인 특허분쟁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특허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전략을 구상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힘을 모아 경쟁국의 특허소송 공세에 적

극 대처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앞으로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특허정보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또한 선진국 및 선진기업의 연구개발방향 등의 동향 파악을 계속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조사조정팀 내 특허정보전략 그룹을 특허정보전략팀으로 승격,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해 특허정보의 분석, 특허정보확산전략 구상, 특허정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정보 신규 데이터의 생성, 검증, 분석,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더 신뢰받는 특허정보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 위탁 용역사업 및 일반 용역사업의 고질화를 피할 것이며, 아울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민간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친화적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